

과학영농시설 신축 청신호

임실군농기센터, 국비 77억5천만원 확보 미생물배양센터와 동시 신축사업 추진 순항

임실군의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신축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과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관련 예산으로 국비 77억5,000만원을 확보, 시설 신축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신축은 총 156억원(국비 70억, 도비 86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군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김관영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전북도 등 관계부처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당초 50억원이었던 국비를 70억원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신축에 필



요한 7억5천만원도 동시에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25년에는 과학영농시설과 미생물배양센터 두 시설을 함께 완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미 확보된 50억원을 포함해 이번 국가균형발전 국비 77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과 지

방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심 군수는 중앙부처와 전북도 등에 농업과학영농시설과 미생물배양센터의 신축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One-Stop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신축 등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인 현장 기술지원 기반 구축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모집

9월 27일까지 희망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임실군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고용주 모집은 현재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로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직접 고용을 희망하는 결혼 이민자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으로 산재보험 가입·최저임금 이상 월급 지급 등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거주에 적합한 숙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과 농가직접고용방식으로 지난달까지 총

160명이 입국해 농가의 영농작업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대부분 베트남 근로자로 관내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전담 통역도우미로 채용하여 전화·방문 상담을 통해 의사소통 문제 해결, 애로사항 해소 등 근로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내년도 봄 영농철에 맞춰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MOU 체결근로자를 서둘러 선발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입국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내년도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의료원, 호흡기 질환자 운동재활 시행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6월 28일부터 남원권 내 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호흡기질환 운동재활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호흡기 질환자의 운동재활은 환자의 질환 정도를 검사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 운동능력과 호흡곤란 기저질환 및 동반 질환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운동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진행 중이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5월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 1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권 내 호흡재활을 시행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7회 순창 강천산배 유소년 야구대회 성료

10일부터 팔덕다용도경기장등 7개 구장에서 6일간 치러져

스포츠산업에 이끌어가는 순창군이 지난 15일 '제7회 순창강천산배 유소년 야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 10일부터 6일간 치러진 이번 대회는 대한유소년야구연맹(회장 이상근)이 주최·주관하고 전라북도 순창군이 후원했으며, 순창군 팔덕다용도경기장등 7개 구장에서 치러졌다. 전국에서 2,500여 명이 넘는 선수들과 학부모들이 순창군을 방문해 모처럼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기는 대회 초반 4일간은 예선 풀리그로 진행됐고, 후반 2일간은 본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새싹리그, 꿈나무리그(청룡, 백호, 현무), 유소년리그



(청룡, 백호), 주니어리그 7개부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휴서기에 진행됨에 따라 경기장에 관람객과 물품포장 등을 설치하는 등 선수 및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주최측과의 협

를 통해 폭염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방위의 준비속에 안전하게 대회를 치러졌다. 그 결과 운영질환자 및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게 무사히 대회를 마무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저감·흐름 개선

남원시가 교통사고를 저감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회전교차로 2개소 설치를 2023년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다. 남원시는 2023년 총사업비 8억4,000만원 중 도비 4억2,000만원을 확보해 월락동 호반아파트 삼거리, 송동면 연산사거리에 남원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통해 계획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로는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2020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

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설치 전 3년간(2017~2019) 연평균 159건에서 설치 후(2021년) 113건으로 46건(28.8%)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월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하여,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개선되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지점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 교통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문화원, 광복 78주년 맞이 해방소나무 기념식 개최

순창문화원(원장 전인백)은 지난 14일 순창초등학교 객사 앞에서 광복 78주년을 맞아 '광복 78주년 맞이 해방소나무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광복 78주년을 맞이해 소나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광복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애국지사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해방소나무는 1945년 해방을 맞아 군민들이 순창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적성초등학교 등 3개소에 1945년에서 1949년 사이에 기념비와 함께 세워진 나무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소나무에 막걸리 주기, 민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행사는 역사적 아픔이 있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인백 순창문화원장은 "해방 이후 잊고 있던 해방소나무와 광복기념비에 대하여 군민들이 관심을 갖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가위 명절선물전 참가 남원 농특산물 홍보 판매

남원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3 한가위 명절선물전'에 참가해 대형유통업체 구매담당자, 도매물류 벤더들, 개인 소비자들에게 남원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 농·특산물 홍보판매관은 코엑스 3층 C홀 부스 내 남원전시관을 설치,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관내 5개 생산업체가 참여하여 지역 특산품인 김부각, 누룽지, 참기름 등 유자류 선물세트와 추석에 꼭 필요한 청주, 탁주 등 전통주 선물세트를 홍보·판매한다. 2023 한가위 명절선물전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 판매와 계약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농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세트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 지역 특산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또한 남원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서울시청 광장과 서초구청, 구로구청 등 자매결연도시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도 참가하여 남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인 남원시e버전터와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북생생장터(<http://freshjo.com>), 특히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에서 남원브랜드관 개설 추석맞이 특별 기획전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할인쿠폰 지원 등을 통해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